

겨울철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 무리가 갈대숲 일대에서 비행하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습지, 멸종위기 겨울철새 ‘탐조 성지’ 자리매김

순천만이 흑두루미를 비롯한 겨울철새들의 주요 서식지로 자리 잡으며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의 생태 복원과 자연 보전을 통해 겨울철새 서식 환경 확대에 주력해온 결과 흑두루미 탐조거리가 단축됐다.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는 경계심이 워낙 심해 순천만 탐사르길에서 인간에게 허용하는 접근거리는 15m였으나 올해는 탐사르길에 위치한 탐조대 인근 농경지 80m까지 접근해 망원경 없이 육안 탐조가 가능해졌다.

순천시는 지난 2009년 차가 다니던 탐사르길 400m를 자연 친화적인 흙길로 복원했다. 연안과 내륙 경계에 위치한 탐사르길은 염분이 유입돼 음이온 농도가 높아 탐조와 맨발 걷기 명소로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09년 초만 하더라도 전 세계 흑두루미 90% 이상이 일본에 집중돼 질병 발생에 따른 종소멸 위험에 직면했던 상황에서 순천만으로 분산되면서 종보전

전봇대 제거·생태 복원 추진...흑두루미 탐조 80m로 단축 서식지 추가 확대·관찰 활동 운영...세계적 생태 관광지 ‘주목’

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선 3기 2006년 노관규 시장이 취임하면서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해 환경지 해시설 철거와 생태 복원을 추진하며 자연성을 회복했다. 특히 2009년에는 대대들 59ha에 있는 전봇대 282개를 철거해 흑두루미의 전선 충돌 사고를 줄였

다. 그 결과 2009년 400여 마리에서 지난해 겨울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 6천마리 중 3천마리가 월동지를 순천만으로 바꾸면서 흑두루미는 7천200여마리가 지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11월 흑두루미 7천600여 마리가

관찰되면서 전 세계 생존 개체수의 50%를 순천만에서 탐조할 수 있게 됐다. 흑두루미 외에도 재두루미, 검은목두루미, 캐나다두루미를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순천시는 내년에 전봇대 15개를 제거해 환경저해시설 없는 서식지 28ha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순천시는 올해 32명의 탐조 전문가를 양성해 12월2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순천만 겨울철새 탐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셀프 탐조 ▲사운드 탐

정기명 여수시장,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

국회 방문서 세계섬박람회 기반시설 예산 등 지원 요청

정기명 여수시장이 2025년도 정부 예산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막바지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정기명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허영 계절 위 간사, 안도길·윤준병·이웅선·장철민·정일영·조계원·주철현 의원 등을 만나 국비 예산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국비가 증액·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편성한 2025년도 정부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예산

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주요 건의 사업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개최 ▲여수국가산업단지 주요도로(대로3-26) 개설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디지털기반 자원순환 시범사업단 구축사업 등이다. 정부안으로 반영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기반시설 구축 예산 23억원 반영과 추가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32억 4천만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정부안에서 반영되지 못한 ‘여



정기명(왼쪽)여수시장이 지난 26일 국회를 방문해 안도길 의원에 대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수산단 대로3-26 개설’ 사업은 차로 불균형으로 인한 병목현상과 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0억원 증액을 건의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12여수세계섬박람회 정부선투자금(3천658억원) 일시상환’ 세입 예산안과 관련해 정 시장은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선투자금에 상응하는 재투자나 연도별 상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시민들의 염원을 대변했다. 정기명 시장은 “국회에서 정부예산 확정시까지 섬박람회 성공개최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군, 치매 통합 돌봄 서비스 구축

치매안심 자원봉사단 발대식

담양군은 28일 “전날 치매안심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 자원봉사단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향촌복지의 일환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됐다. 담양군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는 지난해부터 치매 인식 개선 교육과 치매 노인 실종 모의훈련 등 치매 극복 향

동에 앞장서 왔다. 두 단체가 주축이 된 자원봉사단은 박경옥 치매관리팀장의 지도 아래 치매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며 지역사회 치매안심 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영란 건강증진과장은 “지역사회 치매 어르신을 위해 맞춤형 치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치매 통합 돌봄서비스 구축을 통해 치매 안심담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치매 관련 문의 사항은 담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1-380-2971·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공영민 군수 “‘고흥물’ 농수산물 브랜드화 목표”

대표 상품 개발·품목 다각화 등 4대 운영 방향 제시

고흥군이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고흥물’의 내실 운영과 성장을 위한 2025년 4대 전략을 마련했다. 28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풍양면 고흥물 사무실에서 “2025년 고흥물 운영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공영민 고흥군수 주재로 열렸으며 고흥물의 운영전략을 정립하고, 향후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공영민 군수는 고흥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현장 중심 마케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2025년 고흥물 4대 운영전략으로는 ▲‘고흥물’만의 대표 상품 개발 ▲판매 품목 다각화를 통한 생산자 양성 ▲고향사랑기부제 상품 개발 ▲적극적인 고흥물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고흥군 농수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고흥물은 농어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확 시기와 생산량에 맞춘 유통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값에 적시에(제시기에) 판매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물에서만 구할 수 있는 대표 상품 개발과 제철 농수산물 발굴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고흥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최봉환 기자

구례군청 엄하진,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서 국화장사 타이틀

매화급 선재림 준우승...국화 이세미·무궁화 최희화도 각 3위

구례군청 씨름단은 28일 “지난 25일부터 영암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화급 엄하진 선수는 결승전에서 정수영 선수를 2대0으로 완벽히 제압하며 올해 첫 국화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다. (사진) 매화급에서는 선재림 선수가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김은별 선수에게 2대1로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세미 선수와 최희화 선수도 각각 국

화급과 무궁화급에서 3위를 차지하며 팀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엄하진 선수는 지난해 부상을 극복하고 재활과 훈련에 매진한 끝에 정상에 올랐다. 그녀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둬 정말 뜻깊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선수들이 흘린 땀과 군의 지원이 결실을 맺고, 구례군의 강인함을 전국에 알렸다”며 “여자 씨름의 발상지로서 앞으로도 최고의



명성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열차 운임 50% 할인 등 곡성군-코레일 업무협약

곡성군은 28일 “내년 1월부터 기차를 이용해 곡성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과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은 곡성군과 한국철도공사 가 지난 27일 체결한 인구감소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철도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다시 있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통해 제공된다. 상품은 기차여행, 자유여행, 여행사 패키지 등으로 구성되며, 곡성군을 포함해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맺은 전국 33개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곡성을 오가는 왕복열차 상품을 구매한 후 군에서 지정된 관광지 10곳 중 한 곳에서 코레일톡을 통해 QR코드를 인증하면 열차 운임 50%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관광택시 연계, 주요 관광지 및 체험상품 할인, 지역 상권과의 협력 방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곡성 여행이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많은 방문객들이 곡성의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호남권 유일 ‘순천로봇교육과학관’ 개관

내일까지 개관 행사...돌봄·협동로봇 체험 제공

순천시가 순천로봇교육과학관을 개관하며 시민들에게 로봇 산업과 첨단 기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29-30일 해룡면 여순로 순천로봇교육과학관(사진)에서 개관 행사를 개최한다. 순천로봇교육과학관은 순천시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공간으로, 누구나 돌봄 및 협동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로봇을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다. 정식 개관에 앞서 29일에는 로봇에 관심 있는 장애인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 체험 행사, 30일에는 정식 개관과 함께 로봇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로봇 체험회가 열린다. 개관식은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지난 로봇캡슐 때 큰 인기를 끌었던 생성형 AI를 활용한 ‘나랑 로봇 대화책 만들래?’ 강연이 2회 진



행된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순천로봇교육과학관 관람·체험뿐 아니라 마술 공연, 스탬프 투어, 드론, VR,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PM 등 4차산업 기술 체험이 함께 펼쳐진다. 또 지난 7월 순천시의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여한 로봇 기업들이 참여해 행사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 순천로봇교육과학관은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방문해 무료 관람과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로봇과 순천시의 첨단산업을 접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순천=정기 기자